



# ‘개혁바람’ 안세영 ‘신바람’ 김도영 전국 달군 ‘영파워’

## 스포츠 기자 선정 2024년 국내 10대 뉴스

국내 스포츠 기자들이 선정한 2024년 국내 스포츠 토피뉴스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발언에서 시작된 체육계 개혁 요구 분출이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광주일보 등 전국 언론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올해 국내 스포츠 10대 뉴스 설문 조사에서 49개 참여사 중 10개 회사가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체육 개혁 요구 분출’을 1위로 지목했다.

체육 개혁 요구 분출 소식은 1위 표 10개를 받아 18장의 1위 표를 획득한 ‘예상 갯만전…파리서 12년 만에 올림픽 최대 성과’에 뒤졌으나 2, 3위 표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 총점 363점을 획득, 348점의 파리 올림픽 성과 소식을 제쳤다.

이번 조사는 전 종목에 걸쳐 주요 뉴스 30개를 후보로 추린 뒤 각 언론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위 뉴스에 10점, 2위 9점, 3위 8점 등을 주는 방식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해 올해 10대 스포츠 뉴스를 선정했다.

### 1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체육 개혁 요구 분출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라는 조금 계속 가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나온 ‘배드민턴 퀸’ 안세영(삼성생명)의 이 말은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무릎이 좋지 않았던 안세영은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대표팀의 대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의 ‘인자’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내놓은 ‘작심 발언’은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배드민턴협회와 더불어 국가대표팀 내용, 대표팀 감독 선임 등으로 비판받은 대한축구협회가 중심에 섰고, 국회에선 이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계 부조리를 다루는 현안 질의가 9월 열리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나 경기 단체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라는 근본적 화두는 체육계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 2 예상 갯만전…파리서 12년 만에 올림픽 최대 성과

대한체육회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에 앞서 금메달을 5개 딸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하지만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선수단은 기대를 뛰어넘어 2008 베이징 대회와 2012 런던 대회에서 달성한 단일 대회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순위 8위의 대선전을 했다.

양궁 대표팀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세부 종목 5개를 씹쓸이해 ‘양궁 최강국’임을 재확인했다.

남자 양궁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은 통산 올림픽 금메달 수를 5개로 늘려 역대 한국인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임시현(한국체대)은 여자 양궁 3관왕에 올랐다.

사격에서도 역대 최다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가 탄생했다. 여자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무심한 자세로 사격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펜싱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가 탄생해 ‘한국은 전투의 민족’이라는 반응이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다.

### 3 홍명보 선임 공정성 논란…반대여론에도 4선 나선 정몽규

2024년 한국 축구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 파리올림픽 ‘반전’…12년만에 최고 성적 KIA 타이거즈 V12·프로야구 천만 관중 초호화 멤버 클린스만호 亞컵 우승 좌절 한국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

논란’에 한바탕 흥역을 치러야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작업의 결과에 외국인 감독을 기대한 대다수 팬은 크게 실망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거듭된 여론의 질타에 국회와 정부까지 감독 선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정몽규 회장 지시만으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중도에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받게 하고, 전력강화위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등 허술한 일 처리로 스스로 화를 키웠다.

축구협회가 불투명하고 부패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홍 감독 선임 논란이 터지면서 정 회장은 무능과 독선의 아이콘이 됐다. 2013년부터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 회장은 거센 반대 여론에도 4선 연임 도전에 나섰다.

### 4 프로야구, 한국 프로스포츠 첫 1천만 관중 신기원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꿈의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2024년 정규시즌 720경기에 1088만7705명의 팬이 야구장을 찾았다. 종전 최대였던 2017시즌 840만688명보다 무려 240만명이나 관중이 증가해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관중 1000만명을 돌파했다.

우승팀 KIA도 125만9249명으로 2017시즌 이후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올해 KBO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2월 23일 개막전 5경기에 10만3841명이 입장하며 전 구장 매진으로 흥행의 시작을 알렸다. 6월 23일에는 더블헤더를 포함한 8경기에 14만2660명이 입장해 KBO리그 역대 일일 최다 관중 기록도 세웠다. 8월 18일에는 불펜더위에도 847만5664명의 ‘KBO리그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부터 KBO리그는 일반 팬들이 SNS에 ‘숏폼’(짧은 영상)을 올리는 걸 허용했고, 류현진(한화)의 국내 복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면서 야구장으로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좌절…선수단 내분에도 클린스만 경질 한국 축구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초호화 멤버로 우승에 또 실패했다.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AFC ) 아시안컵을 향한 팬들의 기대는 컸다.

역대 최강의 멤버를 꾸린 데다 사령탑까지 세계적인 골잡이 출신의 윌트겐 클린스만 감독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하며 탈락했다.

기대치를 한참 밑돈 경기력에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은 준결승 전 날 손흥민과 후배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폭발’해버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2월 16일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1년 만의 결별이었다.

이강인은 충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 미디어로 사과문을 올렸으나 글의 수위와 방식은 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공정성 논란으로 흥역을 치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54세 나이로 PGA 최고령 챔피언이 된 최경주.

덕없이 부족했다. 이강인이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12전 12승 불패신화 KIA는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에서 삼성을 4승 1패로 따돌리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산 우승을 차지했다. KBO리그 최다 우승팀인 KIA는 팀 통산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특히 12차례 KS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썼다.

시즌을 앞두고 김중규 전 감독이 비위 사건에 연루되는 약재를 겪은 KIA는 호주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1981년생인 이범호 타격 코치를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범호 감독은 ‘행님 리더십’으로 팀의 중심을 잡았다. 내일, 이의리 등 주축 투수들의 부상 이탈에도 ‘무리하지 않는 운영’으로 KIA를 정규시즌 1위로 올려놓았다. 이 감독은 KS에서도 초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역대 세 번째로 취임 첫해 통산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됐다.

우승 과정은 극적이었다. 1차전은 KBO리그 KS 역사상 첫 스캔디드(일시 정지)게임이 됐고, 팀 분위기를 수습한 KIA는 이를 뒤에 이어진 1차전 남은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같은 날 이어진 2차전마저 잡아 우승의 동력을 얻으면서 트로피를 뽐냈다.

5경기에서 타율 0.357로 맹활약한 김선빈 한국시리즈 MVP를 받았다.

7 ‘전방위 압박’에도…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올해 체육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온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여부였다.

체육계 관련 부조리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사유화’ 논란, 체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전망에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국조사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11월 말엔 감사원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특별감사 착수를 선언했다.

9월 국회 현안 질의와 10월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외부는 물론 체육계 내부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왔지만 이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3선의 길을 차근차근 다지는 중이다.

8 신태용에 덜미 잡힌 한국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 한국 축구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끈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4월 2024 아시안컵( AFC )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한 인도네시아에 무릎을 꿇었다.

A대표팀 기준으로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였던 한국은 134위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연장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쳤고,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2021년 9월부터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2년 6개월의 준비 시간을 갖고도 불명예를 자초했다. 지도자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긴 황 감독은 K리그1 대전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신태용 감독은 2020 아세안축구연맹(AFF)컵 준우승, 2023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사상 첫 토너먼트(16강) 진출 등의 눈부신 성과를 냈다.

### 9 ‘니 맘시 살아야’ 프로야구 김도영 신드롬

2024 프로야구는 KIA 3년 차 내야수 김도영(21)의 득무대였다.

김도영은 타격 3위(타율 0.347) 득점 1위(143점), 장타율 1위(0.647), 홈런 2위(38개), 최다안타 3위(189개), 출루율 3위(0.420)에 오르며 소속 팀 KIA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역대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최소경기 100득점과 30홈런-30도루 등 각종 기록을 달성하며 구름 관중을 끌어모았다.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과 관련한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쏟아졌다. KIA의 한 팬은 경기장에서 ‘도영아 니맘시 살아야’ (도영아 너 때문에 산다)라는 문구를 적어 응원했고, 이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도영아’, ‘니맘시’, ‘살아야’ 라는 문구의 앞 글자를 따서 ‘도니살’이라고 불렀다. 이는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김도영은 시즌 후 프리미어12 2024에 출전해 ‘세계가 주목하는 타자’로 부상했고, 정규시즌 MVP로 시작으로 많은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씩씩’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 10 54세 최경주, PGA 투어 최고령 챔피언 신기록

2024년은 ‘뱅크’ 최경주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됐다.

1970년 5월생인 최경주는 올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자신보다 13살 어린 박상현과 연장전을 치른 최경주는 2차 연장에서 파를 지켜, 파 퍼트에 실패한 박상현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종전 KPGA 최고령 우승 기록은 2005년 매경오픈에서 최상호가 달성한 50세 4개월, 최경주는 이를 4년 가까이 뛰어넘어 만 54세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최경주는 7월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PGA 시니어오픈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하며 한국인 최초 시니어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최경주는 2025년에도 의미 있는 기록을 향해 도전한다. PGA 정규 투어 대회 498개 대회에 출전해 500회 출전을 채울 가능성이 크고,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장기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